

종합

26년 만의 우승컵 ... 하키부 '대통령기' 정상에

김가연 기자 rkodus0617@knu.ac.kr

지난달 11일 강원도 동해시 썬라이즈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제34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가 열렸다. 우리학교 하키부 선수들은 여자대학부 결승전에서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를 3대 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대부와 일반부가 함께 운영되던 1994년도 대회 여대일반부 우승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하키팀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는 15분씩 네 쿼터로 진행된다. 이번 결승전에서 양 팀은 1쿼터에서 득점 없이 2쿼터를 맞이했다. 2쿼터에선 우리학교 전도연(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가 필드골을 성공시키는 등 크게 활약했다. 3쿼터에선 한체대 골키퍼의 파울로 페널티를 얻어 정다빈(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가 공격에 성공했다. 이어 4쿼터에선 주장인 김예은(스포츠지도학 2017) 선수가 터치 슛을 성공시켜 승부를 굳혔다.

이날 결승전에는 비가 내렸다. 우리학교 하키부 출신인 오선우 감독은 “하키는 장비를 사용하는 종목이다 보니 비로 인해 스틱이 미끄러지거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비가 올 때를 대비한 훈련도 진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은 비가 온 것이 오히려 팀에 득이 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비 덕분에 기온이 낮아져 체력 소모가 덜했고,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도 커졌다는 것이다. 김예은 선수는 “팀 인원이 적어 교체 선수



제34회 대통령기 전국하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학교 선수들이 오 감독을 헝가래하고 있다.

(사진=체육부 제공)

“
인원 부족과
감독 부재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왔기에
좋은 결과 낼 수
있었다”

가 따로 없기 때문에 더위에 따른 부상자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며 “비가 온 덕에 기온이 내려가 모든 선수가 끝까지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라며 결승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선수들은 입을 모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경기를 우승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오 감독도 “팀워크, 양보, 배려와 같은 정서적 부분을 항상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로 오 감독은 감독상을,

김예은 선수는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았다. 오 감독은 “시합을 준비하며 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힘든 훈련 과정을 잘 견뎌준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예은 선수는 “주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늘 힘을 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며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이날을 떠올리며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은 인원 부족 등의 열악한 상황을 딛고 얻어낸 결과가 더 값지다. 작년부터 감독을 맡은

오 감독이 오기 전까진 감독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기도 했다. 선수들은 자율적으로 훈련을 진행했고 대회에 출전할 땐 체육부에 있던 다른 지도 교사들이 임시 감독 역할을 했다. 김예은 선수는 “감독이 공석인 동안에는 전술적인 역량을 채우기 힘들었고, 대회에서 심판의 판정을 받을 때나 다음 경기를 할 상대 팀 선수를 전략적으로 골라야 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그간의 일을 회상했다.

체육부 측은 “이전 감독이 정년 퇴직한 후 새로운 감독을 뽑지 못해 3년간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오 감독이 작년부터 재능기부 형태로 감독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키부는 지난 5년 동안 특별한 수상 실적이 없었는데 오 감독이 온 지 2년 만에 큰 상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원 부족에 대해선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체육부서가 다양해서 부서별 정원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오 감독은 “교체 선수가 없는 만큼 훈련을 할 때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12명의 선수가 골고루 활약해 전체 28명으로 구성된 한체대 하키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벌였다”며 대견한 마음도 내비쳤다. 김예은 선수도 “하키부 활동을 하며 크고 작은 일이 많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대학주보 69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재학생, 복학생, 휴학생

전형일정 - 서류전형(지원서 작성): 9월 7일 월요일 ~ 9월 25일 금요일
- 면접일시: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일정 조율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개별 면접 진행

접수방법 홈페이지(media.kn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주요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발제 아이템 기획 및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활동혜택 - 장학금 지급(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편집장 김지원(010-9865-0804), 문의사항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화: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